

大學에서의 專門教育的 位置

— 專門大學院教育的 改善과 關聯하여 —

金 萬 圭

(仁荷大 政外科 教授)

1. 大學專門教育的 向方

大學教育的 機能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하여 왔다. 옛날의 고등교육기관은 한 나라의 支配階級을 양성하는 데 主機能이 있었기 때문에 大衆과 遊離된 特權的 位置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大學은 象牙塔이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학문의 전당으로 美化되었던 것 같다. 교육내용의 重點도 支配階級에게만 필요한 哲學, 政治學, 藝術 등 人文 敎養教育에 치중되었었다. 그러나 産業化의 進行, 近代市民社會의 形成과 더불어 大學은 사회 안의 사회로서 産業社會와 直結되는 교육과 연구, 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대와 요청을 받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대학은 국가의 두뇌로서 한 나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教育機能에서 뿐 아니라, 創意的 研究活動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아이디어를 產出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0년대 이래 産業化를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것도, 해방 이후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가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배출되어 두뇌역

할을 한 결과이었다고 보아 우리가 아닐 듯 싶다. 예컨대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崩壞한 것은 執權勢力의 독재와 부정 부패가 근본원인이기는 하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당정부가 고등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를 受容할 만한 사회적 체제를 지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유당정권은 대학이 產出한 두뇌를 도의시키고 活用할 방책과 전략은 커녕 대학을 牛骨塔으로까지 여겼으므로 그 終末을 自招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進退와 性格을 좌우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와 요청도 그만큼 크고 대학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과 대학인의 사명도 매우 중요하게 마련이다. 물론 해방이후에야 비로소 현대식 고등교육제도를 채택, 대학을 설치 확충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우리 대학들이 사회에 寄與한 貢獻度는 매우 크다. 특히 日帝의 愚民化政策에 시달렸던 우리들이고 보면, 6·25 動亂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고등교육을 伸張한 노력의 결과가 1960年代 以來 産業化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自負할 수도 있다. 그러나 急速한 社會變遷과 우리의 國家·社會的 課題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成果에 安住할 수만은 없으며 한국의 대학 교육도 이에 부응할 質的 改善을 이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知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變化가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대에, 한국인의 生活價値를 能動的으로 開發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도 크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專門的 機能分化, 知識의 專門化 및 高度化, 기술적이고 官僚制의이며 複合組織化하고 있는 社會의 管理를 위한 專門家의 需要增加에 따라, 專門職 遂行에 필요한 大學教育의 機能이 高等教育의 특징으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專門職志向의 職業主義(professional vocationalism)性向은 大學이 學術性(academism)과 職業性(vocationalism)을 어떻게 調和시켜 나가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동시에 고등교육이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장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에 종사하고 있는 現職者를 再教育하여 社會를 高質化시킬 기능까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등교육기능의 변화는 오늘날 大學으로 하여금 學部教育에 置重하기보다는 大學院教育에 큰 비중을 두게끔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大學院教育도 學術研究 學位課程(academic degree program) 못지 않게 應用研究를 중심으로 한 專門學位課程(professional degree program)이 점점 확충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학, 공학, 간호학 및 보건학, 경영학, 행정학, 도서관학, 사회사업, 음악 등 분야에서 전문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또 선진국들은 專門職教育(professional education)에 있어서도 入學條件 및 課程履修條件을 強化하거나 專門科目 履修期間을 늘림으로써 社會의 高度專門化 추세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의 대학원과정 및 전체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은, 專門職業에서의 研究·教育人力 및 專門家(specialists)의 需要增大에 그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專門職自體의 地位를 높이고자 하는 專門職從事者들의 個別的 欲求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專門職 教育에 있어서의 이러한 급속한 확장은 質(quality)의 低下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質의 저하를 막고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專門教育을 어떻게 改善할 것인가가 論議되고 있다. 즉 教育期間의 연장과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에 따른 財政確保 문제, 優秀한 教授要員의 充員 문제, 고등교육기관안의 행정적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들 課題에 직면하여 專門教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교육기준을 설정할 고등교육기관간의 국가적 연합체를 만들어 業績評定(accreditation)을 실시하며, 교육기준과 교육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高等教育이 고도로 전문화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質의 改善策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專門教育에 대하여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

II. 專門職과 專門教育

高度産業化와 社會組織의 專門的 分化로 말미암아 專門職(professions)과 일반직업(vocation) 그리고 醫療, 法律, 宗教 등 전통적 전문직과 새로운 전문직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즉 專門職과 非專門職을 구별할 수 있는 견위 있는 基準이란 없고, 대체로 전문직이란 그 職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科學的 知識과 技術 등 專門的 識見과 오랜 동안의 集中的인 學術的 訓練과 準備를 요구하는 職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의 특성으로 ① 理論的 構造의 理解와 그러한 理解에 따르는 能力에 바탕을 둔 職業 ② 科學的 知識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에 從事하는 직업 ③ 장기간의 전문적 훈련과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 ④ 利他的 奉仕(altruistic service)를 第一의 倫理的 要件으로 하는 職業 등을 들기도 한다.

현대 사회구조의 專門化와 多様化는 醫療, 法律 등 전통적인 전문직 이외에 많은 새로운 專門職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專門職業主義(professionalism)가 普遍的 現象이 되고 있다. 이러한 專門職業主義는 業務遂行上의 專門的 知識의 要求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에 더 큰 要因이 있는 듯도 싶다. 또한 이러한 現代 社會構造

의 專門化 추세 때문에 學問分野도 多樣化, 細分化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大學教育의 中心點을 學部教育과 大學院教育, 教養教育과 專門教育 가운데 어디에 더 높은 比重을 둘 것이냐는 엇갈리는 주장들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高等教育의 방향이 學部課程에서는 教養教育과 專門基礎教育에 강조점을 두고 專攻教育과 深奧한 學術研究 및 專門教育은 주로 大學院水準의 教育課程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韓國社會의 경우도 1960年代 以來 급속한 산업화의 進전에 따라 專門職의 多樣化 現象을 빚어 왔으며, 大學에서 純粹科學(pure science)보다 應用科學(applied science)分野 專門教育의 比重이 점차 커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從來의 法學, 醫學 등을 비롯하여 工學, 經營學, 行政學 등 多様な 專門教育 分野의 學科와 大學院의 設置가 增加하였다. 특히 경영, 행정, 교육, 산업, 보건, 신문방송, 무역, 환경, 통역, 식량개발, 산업미술대학원 등 專門大學院이 그 種類의 多樣性を 나타내고 있으며, 機關數에 있어서도 一般大學院을 능가할 정도의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大學院의 數에 있어 1983년 현재 전국적으로 일반대학원이 67개인데 비하여 전문대학원은 1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專門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 수준의 專門教育機關의 量的 增加에도 불구하고 教育의 質的 水準에 있어서는 도리어 學部教育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專門教育을 論議하는 경우, 소위 特殊大學院이라 부르는 專門大學院에 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課題들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종합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 외에 2~3개 이상의 專門大學院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專門職從事者들에게 平生教育의 입장에서 水準 높은 專門教育을 하는 데는 未洽하다. 첫째, 學歷을 높이려는 이들의 學位取得 欲求에 편승한 大學의 收入源으로 생각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終日制院生(full-time-student)을 대상

으로 한 範圍의 一般大學院과는 달리 전문대학원은 거의 모든 기관이 現職 專門人을 대상으로 한 야간교육과정이므로, 이들 現職人에 대한 責任있는 지도와 훈련을 위하여 최소한의 專任教授 확보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國公立專門大學院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전문대학원들이 전임교수를 두지 않고 있다. 이는 1982년 현재 전국적으로 출강교수에 대한 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비중이 고작 5.8%에 불과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요구에 따른 현직 전문인들의 自己更新의 機會擴張이라는 本義와는 달리, 전문대학원생의 學費負擔을 加重시키는 登錄金制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본래 전문대학원의 修學期間을 일반대학원 보다 1~2학기 많은 5학기 또는 6학기(제절제 전문대학원)로 연장한 것은, 그 教育의 質的 統制를 위한 方便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修學의 上限線을 설정하고 學期當登錄金制를 그대로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院生의 등록금부담만 1~2학기분 더 크게 하고 있다.

셋째, 教授의 側面에서 보면 專門大學院의 設置는, 學部 및 一般大學院 教育만으로도 過重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교수로 하여금 부담만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야간 전문대학원의 강의시간을 책임강의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지도와 강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변천에 따라 現職 專門人들에게 修學機會를 넓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專門大學院의 설치가 이를 설치할 大學에 대한 業績評定 없이 남발되어 온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特殊한 專門分野에 대한 全國的 次元에서의 配置上의 考慮 없이 또는 그 專門分野의 教育을 담당할 先行條件에 대한 評定이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III. 專門教育의 改善方案

현대의 교육은 점점 各者의 專門的 業務와 直結되고 平生에 걸친 過程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교육은 時代的 變化에 부응하여야 함과 동시에 변화의 선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장래는 각 전문분야에 계속적으로 自己更新하려는 전문엘리트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라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문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大學에서의 專門教育의 課題는 그 中心點이 學部課程으로부터 大學院課程으로 옮겨 가고 있는 현실인 듯 싶다. 이 점에서 專門教育의 改善方向은 大學院教育의 強化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전통적인 專門分野인 醫學, 法學 등을 제외할 많은 새로운 專門職教育의 課題는 우리의 경우 專門大學院의 強化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또 한국사회 각 전문분야의 엘리트들이 專門大學院에서 修學하기를 바라는 性向이 뚜렷한 현실임을 고려하여 전문교육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示唆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專門大學院을 통한 專門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전문대학원과 사회집단,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상호간의 協同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高度産業化에 따른 社會의 高度化로 사회 각 집단들은, 전문인의 확보와 재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또는 전문대학원과 사회기관간의 專門人교육 훈련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의 質的 向上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협동적 노력이 요청된다. 예컨대 전문대학원의 財源은 특수 전문영역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교수의 연구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전문교육의 質的 向上으로 還收되도록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전문대학원 상호간의 협동기구를 형성함으로써, 해당 專門分野別 週期的인 自律的 業績評價體制(accreditation system)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 기구를 통하여 專門大學院의 設置基準 및 業績 등이 評價되고, 이를 토대로 교육

의 自律的 發展과 統制가 가능하며,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誘引할 수 있다.

둘째로, 앞서도 言及한 대로 專門敎授를 확보함으로써, 전문대학원이 責任 있는 교육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실 이외에는 교수의 접촉하기 어려운 現職人들에게 이들을 지도할 전임교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원교육을 학부교육수준 이하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야간 전문대학원생들의 相談役은 고작해야 학술과 관계 없는 事務職員이기 마련이고, 이는 뜻 있는 現職의 유능한 專門人으로 하여금 大學院水準의 專門教育에 대한 懷疑를 낳게 하기도 한다. 특히 학부와 일반대학원 교육부담으로 업무량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야간 전문대학원 出講 교수들에게 전문대학원생 지도까지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전문대학원교육이 學歷을 높이기 위한 조건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로, 專門大學院의 강의 및 원생지도 업무량을 교수의 法定負擔量 算定에 포함시켜, 責任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專門大學院은 學術研究學位課程과는 다른 現職 專門人에 대한 再訓練 및 專門職에서 활용할 수 있는 應用研究課程이므로, 보다 많은 現職人들에게 修學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은 학기당 등록금제 때문에 그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행 學期當 登錄金 總額을 學點數로 換算하여 講座當 등록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修學期間의 연장으로 現職專門人들의 學費負擔만 늘린 愚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와 같은 專門教育(professional education)으로서의 전문대학원 교육개선이 대학경영·행정자, 교수와 사회집단에 의한 공동노력으로 모색될 때 대학은 스스로 完善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